인문계열 [문제 1] 해설 및 모범답안

[문제 1] 제시문 <가>의 ㉠의 원인을 제시문 <나>에서 찾고 이러한 변화가 인간에게 야기하는 문제를 설명한 후, 제시문 (다)의 두 입장을 비교하여 ㉡의 새에게 보다 호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논술하시오. (50점, 750±50자)

(가)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휙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www.LegendStudy.com

(나)

산업화 과정에서는 흔히 도시화가 함께 진행된다. 이는 도시에 많은 공장, 상점 등이 들어서고 상업·업무 기능, 주거 기능, 공업 기능 등과 관련된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서 도시가 촌락에 비해 더 많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도시화가 되면 촌락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그 결과, 도시의 수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확대된다.

그러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화를 추진하거나, 이 과정에서 환경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 오염, 소음, 각종 폐기물과 폐수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은 훼손하기는 쉬어도 다시 복원하기는 어렵다. 또한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다)

인간 중심주의자들에게 인간은 생물을 포함한 다른 모든 물질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다. 이들은 인간만이 가치를 선택하고 도덕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연의 가치 역시 인간에게 도구 혹은 수단으로 얼마나 유용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환경이 인간의 생존과 풍요로운 삶의 토대임을 인정하고 만약 환경이 훼손된다면 인간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환경 개발 과정에서 무절제하고 근시안적인 이익 추구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환경 개발의 적절성은 인간 존중,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정의, 자유 등 기존의 윤리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것만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오직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만약 동식물과 자연환경 보존이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것과 상반될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일련의 조치는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비옥한 자연환경을 개간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놓이게 된다면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환경을 개발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이들에게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생존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자연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과 권리를 인간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며 인간과 자연은 일종의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이나 자연의 다른 생명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의 구성원일 뿐이기에 전체 생태계의 조화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자연 그 자체가 가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중심의 관점에 갇힌다면 자연의 섭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비록 동식물을 포함하여 자연환경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동식물과 자연환경이 누려야 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동식물들도 자신의 관점에서 최선의 삶을 알고 있다. 다만 스스로 이를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구성원이다. 자연도 인간 없이 완전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인간도 자연 없이 완전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개체인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인간은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때로는 인간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체 생태계의 조화를 위해 자연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